**암괴사면(애추사면)**

시카리베쓰의 종상화산 사면의 대부분은 깨진 바위로 덮여있습니다. 이 부근의 바위는 크고 울퉁불퉁하며 크기는 거의 균일합니다. 바위의 크기와 분포를 통해 산사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용암이 냉각되고 동결과 융해의 순환을 반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용암이 냉각되면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은 용암류가 되고 식어서 굳어집니다. 용암의 표면 근처는 빠르게 식어서 굳고 중심부로 갈수록 천천히 식어서 굳습니다. 식은 용암은 수축하고 굳어가던 바위는 갈라져 서서히 붕괴됩니다.

동결, 융해, 다시 동결

물의 동결과 얼음의 융해를 반복함으로써 지형은 풍화되어 침식이 진행됩니다. 물은 바위틈에 스며들어 얼면서 팽창합니다. 이에 따라 주변 바위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 바위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동결과 융해, 팽창과 수축의 반복으로 바위는 결국 갈라져 파편이 됩니다.

최종빙기

최종빙기(약 8만~1만 년 전) 후반에 해당하는 6만 년에서 1만 년 전 시카리베쓰 화산군의 활동은 대단히 활발했습니다. 연간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약 10°C 낮았으며, 당시 홋카이도의 겨울은 현재의 시베리아 정도로 추웠습니다. 홋카이도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었으며, 일부는 빙하가 이어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카리베쓰 화산군의 울퉁불퉁한 사면은 훨씬 추웠던 이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니시누푸카우시누푸리산(1,251m)과 히가시누푸카우시누푸리산(1,252m)을 하이킹하거나 니시누푸카우시누푸리산 동쪽 기슭에 있는 센조쿠즈레를 방문하면 이런 사면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